

ISSN: 2635-6104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44

May
2026

3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북극연구

The Journal of Arctic

No. 44 May 2026

발행일 : 2026년 5월 31일

인쇄일 : 2026년 5월 31일

발행인 : 김정훈

편집위원 : 곽성웅, 계용택, 라미경, 박종관, 방민규, 배규성,
백영준, 서승현, 양정훈, 예병환, 이재혁, 한종만

발행처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북극학회

전화 042) 520-5713

FAX 070-4850-8428

E-mail : kiseling@daum.net

주소 : (35345) 대전광역시 서구 배재로 155-40(도마동) 배재대학교 아펜젤러관 416호

인쇄처 : 오크나

주소 : (34862)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364-2

디자인 : 이다용

표지사진 : 2020년 콜라반도 사미마을(김정훈 소장 현지출장 중 촬영)

목 차

- ▶ 북극 수색 및 구조(Arctic Agreement on Search and Rescue) 협약 시행과 정책상의 함의 1
정혁
- ▶ 안보 중심의 과학 외교와 신냉전기 북극권 군사화:
한국 국방 안보의 실천적 과제 7
최배성
- ▶ 환북극 민족 네네츠인의 종교문화 15
김자영
- ▶ 캄차카 탐험사 - 스타두힌 이야기 7 25
곽성웅

북극 수색 및 구조(Arctic Agreement on Search and Rescue) 협약 시행과 정책상의 함의

정 혁

(한국의국어대학교 극지연구센터)

북극 지역의 해빙이 온난화 증폭(amplification)으로 가속화되면서 북극 지역의 해로와 항로의 개설과 확대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북극 지역에서의 기온의 큰 상승 폭으로 그동안 결빙되었던 항로와 해로를 해빙시키면서 선박들의 운항 역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선박들의 운항 시간 및 횟수 증가는 북극 해역에서의 선박 해상 안전사고 및 비상 상황 발생 시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고 잠재적인 해양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한다. 또한 북극 해역에서 해양 사고에 관여한 선박의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속성의 사고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피해 감소를 위한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고 해역 국가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북극 지역 연안 8개 국가인, 미국, 러시아, 캐나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그리고 아이슬란드는 북극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박의 안전 및 항행 사고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북극이사회(the Arctic Council)의 후원 하에 2011년에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The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을 체결하였다.¹⁾ 북극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사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체결된 이 협약은 북극 지역 연안 8개 국가가 모두 합의한 북극 지역 첫 구속성 협약으로서 의의가 있다.²⁾

이에 본고에서는 북극 지역의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 시행 중인 북극 수색 및 구조 협약(Arctic Search and Rescue Agreement)의 주요 내용을 파악해보고 정책상의 함의와 한국 정부로의 시사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2011년에 마련된 북극 지역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의 국제적인 기본 틀을 논의한다. 이어, 3장에서는 협약의 주요 내용을 그리고, 4장에서는 앞서 논의된 내용을 기반으로 협약의 정책상 함의를 모색해보고 향후 한국 정부를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1) Arctic Portal Library, “Arctic Search and Rescue Agreement,”

<https://library.arcticportal.org/1709/> (검색일: 2026. 5. 2)

북극 수색 및 구조 협약은 공식적으로는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으로 알려져 있다.

2) High North News, Politics, “Arctic Guardian 2025: Multilateral Exercise on Maritime Emergency Responses off Northern Norway,”

<https://en.highnorthnews.com/politics/arctic-guardian-2025-multilateral-exercise-on-maritime-emergency-response-off-northern-norway/236483> (검색일: 2026. 5. 2)

1. 북극 수색 및 구조 협약의 기본 틀

1982년에 체결된 유엔해양법협약(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은 북극을 포함한 세계 모든 해역의 관리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 협약은 북극 연안 국들의 관할 해역 관리, 천연자원, 그리고 항해에 관한 권한 및 의무 내용 등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협약은 연안국들이 필요하다면 지역적 협력을 통해 관할 해역에서의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색 및 구조 임무 수행, 운영 및 유지를 증진시킬 것을 요구한다.³⁾ 사고 해역 관할권 연안국의 독자적인 임무 수행보다는 사고 해역 주변 지역의 지역적 협력 요구는 수색 및 구조 대응에 필요한 기동성과 중대성을 감안한 접근이라고 볼 수 있다.

1974년에 마련된 국제해상생명안전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은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상선 안전에 관한 주요 국제 조약으로 간주된다.⁴⁾ 이 협약은 선박의 제조, 설치물 및 장비, 그리고 운영 분야의 국제안전기준에 관한 규정, 법(code s), 그리고 절차를 위한 법적 기본 틀을 제공한다.⁵⁾ 선박이 사고에 관여 시 선박이 갖춘 설비 설치물로 대응함으로써 사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79년에 체결된 '국제 해상 수색 및 구조 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의 일부 내용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에 반영되었다. 이 협약은 협약국의 해역에 구조를 위한 협력조정센터(Cooperation Coordination Center)와 하위 센터의 설립을 위한 법적 기반이 되었다.⁶⁾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위한 관여 기관 간 협력을 조정함으로써 해당 임무 수행에 있어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면을 갖출 수 있게 되었다. 수색 및 구조 작전 중 비상 또는 경계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운영 절차들에 관한 대략적인 내용도 다루고 있다.⁷⁾ 더불어, 협약 체결국 선박들은 운항 중 이동 지역 해안 무선국에 그들의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⁸⁾ 이는 수색 및 구조에 있어 원활성 및 신속성 향상과 사고 발생 시 관할 및 주무 기관과의 사후 대응 절차를 위한 의무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1944년에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Chicago Convention or the Convention on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 의거, 1947년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nternational Civil Organization)가 설립되었다.⁹⁾ 국제선 민간 항공 분야 항공사들의 노선 조율과 관리가 목적이었던 이 유엔 기구의 설립 기반이 되었던 국제민간항공협약은 협약 체결국들의 영공 관

3)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ontego Bay, 10 December 1982, entered into force 16 November 199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833 (LOSC), Article 98, 2

4)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1974, [https://www.imo.org/en/about/conventions/pages/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solas\),-1974.aspx](https://www.imo.org/en/about/conventions/pages/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solas),-1974.aspx) (검색일: 2026. 5. 4).

5)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184, Chapter 5, Regulation 10 (a).

6) International Convention on Maritime Search and Rescue, 1979,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405.

7) *Ibid.*, chapter 4.

8) *Ibid.*, chapter 5.

9) Government of Canada,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https://www.treaty-accord.gc.ca/text-texte.aspx?id=105240> (검색일: 2026. 5. 2).

리 및 자국 항공기들의 등록 및 안전에 관한 권리를 규명하고, 위험 화물들의 항공편 국제 운송과 관련한 원칙들을 정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개발한 국제항공해상 수색 및 구조 매뉴얼(International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Manual)은 수색 및 구조 서비스 편성 및 제공 측면에서 항공과 해상의 공통 접근 방식에 관한 지침(guidances)들을 제공한다.

현재 '북극 수색 및 구조 협약' 즉 공식적인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이 마련되기까지에는 소수의 관련 국제 협약들이 그 법적인 기본 틀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적 틀을 제공하는 협약들은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의 국제적인 규정과 기준들, 그리고 협약 체결국들의 의무와 권리, 그리고 수색 및 구조가 이루어질 때 준수해야 할 절차들을 제시하고 있다.

2.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의 주요 내용

2009년 북극이사회는 노르웨이 트롬소(Tromsø)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북극 지역의 북극 수색 및 구조 협력을 위해 위임할 수 있는 한 특별위원회(task force)의 설립을 결정하였다. 이후 북극이사회 8개 회원국은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을 2011년에 누크(Nuuk)에서 체결하였으며, 2013년에 효력을 발휘하였다.¹⁰⁾ 이 협약의 목표는 북극 지역의 항공 및 해상 구조 협력과 조정을 더욱 강화하고, 각 회원국은 자국의 수색 및 구조 지역 내에서 자국의 수색 및 구조 역량의 구축, 운용, 그리고 그 관리를 강화하는 데에 있었다.¹¹⁾ 전반적인 목표는 상술한 유엔해양법협약 내에서 다뤄진 방향과 같지만, 이 협약은 회원국들이 자국의 수색 및 구조 지역 내에서 해당 임무를 수행할 완전 재량권을 가진 구체적인 기관을 지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협약에는 협약 체결국의 수색 및 구조 분야의 의사결정 체계에 있어 3단계를 제시하면서, 주무 당국, 권한 대행 기관, 그리고 수색 및 구조 분야에 있어 전반적인 임무에 관한 책임 수행 기관으로서 구조 조정 센터 설립 및 운영을 명기하고 있다.¹²⁾ 수색 및 구조 분야에 참여하는 다수의 정부 부처, 기관들의 참여를 구체적인 국가 권한 대행 기관의 운영을 통해 조율하면서 명확한 명령 체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구조 조정 센터 운영의 주요 목표는 수색 및 구조 분야의 임무 수행 측면에서 주요 과제인 소통의 간소화에 있었다.¹³⁾ 또한, 지원 요청을 받은 주체는 요청한 지원의 제공 가능 여부와 그 조건을 즉시 결정, 지원 가능 및 조건 수락 여부를 요청한 측에 알려야 한다. 이 협약은 이 구조 조정 센터의 임무 수행 시 제공해야 할 자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는 명기하지 않고 있다. 그 자원 제공 비용과 자원 제공 수준의 적절성은 전적으로 그 센터 운영국이 결정해야 한다.¹⁴⁾ 협약 체결국 별 수

10) Arctic Council,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https://oarchive.arctic-council.org/items/9c343a3f-cc4b-4e75-bfd3-4b318137f8a2> (검색일: 2026. 5. 3).

11) Are Kristoffer Sydnes, Maria Sydnes, Yngve Antonse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Arctic Review on Law and Politics, Vol. 8, 2017, p. 116.

12) Anton Vasiliev,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A New Chapter in Polar Law," in Polar Law Textbook II(2013), ed. Natalia Loukacheva, pp. 53-65.

13) Are, *op. cit.*, p. 116.

색 및 구조 분야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원의 상이성과 자원 별 경쟁력을 감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협약의 조항 9는 협약 체결국간 협약 관련 사안과 관련하여 협력 발전 필요성을 명기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는 수색 및 구조 작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정보 교환과 관련하여, 통신 내용, 수색 및 구조 시설 관련 정보, 연료 재보급 및 재공급 기능을 갖춘 비행장 및 항구 개요, 주유 공급 관련 정보, 보급 및 의료 시설, 그리고 수색 및 구조 요원 훈련에 중요한 정보 등을 포함한다.¹⁵⁾ 이러한 내용들은 이 협약의 협력 발전 측면에서 수색 및 구조 상황 발생 시 참여 행위자들의 기동성 향상을 위한 사전 정보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협약 내용은 또한, 수색 및 구조 분야에 있어 상호 간 협력 원활성 향상을 위해 공조 가능한 영역들도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는 경험 교류, 기상 및 해양학 측면의 관측 정보 공유, 수색 및 구조 분야 요원교환, 공동 훈련 및 연습 결정, 수색 및 구조 목적 선박 보고 시스템 활용, 정보 시스템과 수색 및 구조 절차와 기술 및 장비 시설 공유, 수색 및 구조 임무 서비스 지원, 수색 및 구조 이슈 관련 국가 입장 공유, 공동 연구 및 개발 지원 및 시행, 그리고 정기적인 통신 확인 및 훈련 시행 등을 들 수 있다.¹⁶⁾ 특정 수색 및 구조 임무 수행의 원활성 향상을 위해 관여 국가들 간 필요한 자원, 정보, 훈련 및 시설들의 공유를 통한 공조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는 영역들이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일반적인 협력을 위한 노력 증진과 정보 교류 측면 이외에도, 협약은 협약 체결국들에게 실질적인 협력에 관한 이슈 해결과 고려를 위해 정기적인 회의 개최를 지시한다. 이 회의의 목적은 체결국들이 공동훈련과 연습을 시행하면서 국가 차원 수색 및 구조 분야 훈련에 전문가들과 그들의 참여를 참관인으로서 참여시키면서 상호 방문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회의들을 통해서 기획, 개발, 통신 시스템 활용, 북극 지역 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적인 지침(guidelines)들에 관한 검토 및 개선, 북극 기상학적 서비스 관련 지침 검토 영역에서 발전을 도모하게 하고 있다. 또한 체결국들이 수색 및 구조 작전을 조율한 체결국이 주도한 작전에 관해 공동 검토할 것을 권장한다.¹⁷⁾ 타 체결국이 주도한 수색 및 구조 작전 수행 등을 통한 학습 효과를 체결국들이 공유함으로써 각 체결국들의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협약 체결국은 자국 내 협약 적용 지역과 관련해서 다른 체결국에 적용 지역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 관련된 정보 내용을 개정할 수 있다.¹⁸⁾ 이는 북극 해역의 빙설 해빙으로 해로 및 수로가 확대되면서 선박들이 기존 협약 적용 지역을 벗어나 항해할 수도 있어, 기존 체결국들의 수색 및 구조 지역의 범위도 확대될 수 있어서다. 아울러서 협약 관련된 체결국간 모든 분쟁 해결의 수단으로서 직접 협상하도록 하고 있다.¹⁹⁾ 각 체결국이 처한 지정학적인 환경을 고려하고 불필요한 정치적인 마찰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높은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

14) Are, *op. cit.*, p. 117.

15) Anton, *op. cit.*, Article 9, para 2.

16) *Ibid.*, Article 9, para 3.

17) Anton, *op. cit.*, Article 11

18) *Ibid.* Article 19 para 3.

19) *Ibid.* Article 17

아울러서 체결국들은 협약을 탈퇴할 수도 있는데, 탈퇴 유효 일 기준 최소 6개월 전에 외교 채널을 통해 서면 통보 이후, 언제든지 협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²⁰⁾

3. 합의 및 한국 정부를 위한 시사점

북극 지역 빙설의 해빙이 가속화되고 선박의 항해 증가가 예상되면서 북극 해역에서 선박의 해양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항해 보장을 위한 안전 해상교통로 확보와 해양 사고 대응 체계 마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 지역 항해 시 발생할 수 있는 해양 사고 대응 수색 및 구조 작업의 기동성과 효율성 역시 강조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극 지역 8개 연안 국가들이 협상을 거쳐 체결한 첫 구속성 협약인 ‘북극 수색 및 구조 협약’의 시행은 큰 의의가 있다. 2011년에 체결하여 2013년부터 효력이 발휘된 이 협약은 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기존 수색 및 구조와 관련된 국제 협약들의 주요 해당 내용이 반영된 협약 시스템 성격을 갖추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서는 지역적 협력, ‘국제해상생명안전협약’에서는 선박의 안전과 인명 구조를 위해 선박이 갖춰야 할 요건, ‘국제해상수색 및 구조 협약’에서는 협력조정센터의 역할 상의 중요성, 그리고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수색 및 구조 서비스 편성과 제공 측면에서 항공과 해상으로부터의 공통적인 접근 방식에 관한 지침들을 제공하면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북극 수색 및 구조 협약’의 틀을 이루고 있다. ‘북극 수색 및 구조 협약’은 협약 체결국들의 수색 및 구조 역량 강화, 구조 조정 센터 활용을 통한 소통 간소화, 수색 및 구조 관련 정보 교류 활성화를 통한 임무의 효율성 및 협력 원활성 향상, 체결국 간 정기적 회의를 통한 학습 효과 수용 등의 정책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 그러나 체결국 간 수색 및 구조 분야의 자원 한계성, 수색 및 구조 협약 적용 지역의 예측 불가능성 및 가변성, 그리고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실제 구조 활동에 대한 저해 가능성 등은 협약의 긍정적인 효과의 배가를 위해서 더 심층적으로 재고되어야 할 정책 영역으로 여겨진다.

한국 정부도 최근 북극항로 활용 확대 결정으로 북극 연안국 해역에서의 우리 국적 선박 해양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의 마련 및 운영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북극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박이 관여하는 수색 및 구조 분야 관련 이슈 발생 시 대응 협력 체계 마련을 위한 해당 해역 관할 국가와의 협력은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재 ‘북극 항공 해상 수색 및 구조 협력 협약’의 회원국이 아니기 때문에 북극 해역에서 우리 국적 선박이 해양 사고 발생 시 해역 관할 회원국과 공조하더라도 다소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구도이다. 이에 한국 정부도 향후 북극 해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리 국적 선박의 해양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북극 연안 8개국과의 공조를 위해 북극 연안 8개국과의 수색 및 구조와 관련한 개별적인 양자 협약을 체결하는 것도 재고해 볼 만한 접근으로 보인다. 아울러서 이러한 수색 및 구조 분야에서의 우리 국적 선박의 해양 사고 대응 체계 마련은 향후 우리 국적 선박의 북극항로 활용을 위한 안전을 담보함으로써 선사들의 항로 활용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0) *Ibid.* Article 19 para 3.

[참고문헌]

- Arctic Council,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https://oaarchive.arctic-council.org/items/9c343a3f-cc4b-4e75-bfd3-4b318137f8a2> (검색일: 2026. 5. 3).
- Arctic Portal Library, “Arctic Search and Rescue Agreement,”
- Government of Canada,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 High North News, Politics, “Arctic Guardian 2025: Multilateral Exercise on Maritime Emergency Responses off Northern Norway,”
-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197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184, Chapter 5, Regulation 10 (a).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ty of Life at Sea (SOLAS), 1974, [https://www.imo.org/en/about/conventions/pages/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solas\)-1974.aspx](https://www.imo.org/en/about/conventions/pages/international-convention-for-the-safety-of-life-at-sea-(solas)-1974.aspx) (검색일: 2026. 5. 4).
- Sydnes, Are Kristoffer, Maria Sydnes, Yngve Antonsen,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 *Arctic Review on Law and Politics*, Vol. 8, 2017, pp. 109-136. p. 116.
-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Montego Bay, 10 December 1982, entered into force 16 November 1994, United Nations Treaty Series, 1833 (LOSC), Article 98, p. 2.
- Vasiliev, Anton, “The Agreement on Cooperation on Aeronautical and Maritime Search and Rescue in the Arctic-A New Chapter in Polar Law,” in *Polar Law Textbook II* (2013), ed. Natalia Loukacheva, pp. 53-65.
- <https://en.highnorthnews.com/politics/arctic-guardian-2025-multilateral-exercise-on-maritime-emergency-response-off-northern-norway/236483> (검색일: 2026. 5. 2)
- <https://library.arcticportal.org/1709/> (검색일: 2026. 5. 2)
- <https://www.treaty-accord.gc.ca/text-texte.aspx?id=105240> (검색일: 2026. 5. 2).

안보 중심의 과학 외교와 신냉전기 북극권 군사화: 한국 국방 안보의 실천적 과제

최배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미래국방 국가기술전략센터)

1. 서론: 북극 예외주의의 약화와 안보 중심 과학 외교의 필요성

탈냉전기 이래 북극권은 지리적 고립성과 환경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지정학적 갈등에서 분리된 공간으로 인식됐으며, 국지적 ‘저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완충 지대로 기능해 왔다. 이러한 평화적 거버넌스는 ‘북극 예외주의(Arctic Exceptionalism)’에 기반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비롯한 글로벌 안보 지형의 급격한 구조 변동은 이러한 예외주의적 지위를 약화하고 역내 안보 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북극해 연안 국가들의 안보적 진영 재편과 강대국 간의 직접적인 대치 구도 형성은 북극권 내 ‘규칙 기반 질서(Rules-based Order)’의 구조적 위기를 가속하는 거시적 환경 변수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거점화로 인해 역내 안보적 불확실성은 고조되고 있으며, 과거 다자간 협력 메커니즘의 마비는 북극이사회의 핵심 협력 기능이 심각하게 제약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러-우 전쟁 이후 미국을 비롯한 북극이사회 내 7개 회원국이 참여 일시 중단을 선언하며 다자간 협의체 메커니즘이 파행되었고, 역내 위기관리 공백과 전략 정보의 비대칭성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심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 비대칭성의 심화는 미국과 서방 주요국의 대러 제재와 외교적 대립으로 더욱 가중되었다. 2021년 4월 15일 서명된 미국의 「대통령령 제14024호(Executive Order 14024)」는 러시아 정부의 유해한 대외활동에 대응하여 지정 개인과 기관 및 단체의 미국 관할 내 재산과 재산상 이익을 동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시하였다.¹⁾ 해당 행정명령을 기반으로 한 고강도 금융 및 기술 제재가 다각화되면서 미·러 간 양자 정보 공유 채널이 약화하였고, 이는 역내 안보 동향을 감시하고 조율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의 분절을 초래하였다. 그 결과 북극항로 운항 정보, 해양·환경 관측자료 및 해저 통신을 포함한 주요 인프라 관련 공개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교환 여건이 악화하였다. 이는 역내 동향 파악과 영역 인식(domain awareness)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더불어, 핵심 자료의 불투명성이 심화하면서 상대방의 전술적 의도를 파악할 수 없는 전략적 비대칭성이 고조되었으며, 각국의 정밀 영역 인식 역량에는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보의 불투명성은 사소한 해상 위험 요인이나 오인 기동이 당사국들의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국지적 무력 충돌로 번지는 우발적 긴장 고조의 위험성을 상존시키며, 북극권을 군사적 긴장과 위기관리 부담이 증대되는 잠재적 하이브리드 위협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1) 본 행정명령은 러시아 정부의 자산을 일괄 동결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개인 및 단체를 타겟팅하는 제재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024 of April 15, 2021: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ederal Register* Vol. 86, No. 73, 2021, pp. 20249-20252, <https://ofac.treasury.gov/media/57936/download?inline> (검색일: 2026.05.20.)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²⁾

이러한 북극권의 안보 공백과 다자 소통 채널의 약화는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안보 환경에도 간접적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 특히, 북극항로 활용, 에너지 안보, 해양 인프라 보호 및 군사기술 경쟁이 글로벌 차원에서 상호 연계됨에 따라, 북극권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한국의 해양안보와 국방기술 전략 수립에 있어 간접적 유발 요인을 넘어 점차 무시할 수 없는 핵심 고려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국방부는 북극권 안보 지형의 변화를 원거리 외교 사안이 아닌, 중장기 국방 안보 및 기술 안보 전략과 유기적으로 연계해야 할 필수 변수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강대국 간의 군사적 대립 상황에서도 우발적 충돌을 방지하고 상호 정보의 공백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적 거버넌스 기제에 관한 논의가 요구된다. 국제사회에서 과학 외교(Science Diplomacy)는 일반적으로 과학기술과 외교의 상호작용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외교정책 결정에 과학적 조언을 제공하는 ‘외교 속 과학(Science in Diplomacy)’, 외교적 수단을 통해 국제 과학 협력을 촉진하는 ‘과학을 위한 외교(Diplomacy for Science)’, 과학 협력을 통해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는 ‘외교를 위한 과학(For for Diplomacy)’의 세 가지 축으로 구분됐다.³⁾ 그러나 최근 북극권에서 전개되는 복합 하이브리드 위협은 이러한 전통적 분류 체계를 넘어, 국가가 보유한 독자적 과학기술 자산을 군사적 억제, 정밀 영역 인식 및 전술적 임무 완수 보장과 전략적으로 결합하는 ‘안보 중심 과학외교’로의 거시적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⁴⁾

이러한 점에서 한국이 보유한 독자적인 국방 과학기술 역량을 북극 다자 안보 구조 내에서 투사하여, 대한민국의 외교적 레버리지와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천적 국방 외교 지침의 수립은 신냉전기 국방 전략의 핵심 과제라 할 수 있다.

2. 북극권 정보의 비대칭성과 비전통 안보 위협의 부상

(1) 다자 소통 기능 제약에 따른 정보 불확실성

러-우의 전쟁 이후 북극권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역내 동향을 파악하고 위협을 조율할 수 있는 다자간 협력 여건도 감소하였다. 특히, 북극권 거버넌스의 다자적 축을 담당해 온 북극 이사회의 기능 약화는 역내 소통 체제를 정체시키고, 가치 동맹 중심의 안보적 블록화와 전술적 감시 공백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본래 북극이사회는 설립 근거인 오타와 선언을 통해 군사 안보적 의제를 제외한 채 비정치적 협력만을 다루도록 설계되었다. 하지만, 러-우 전쟁 여파로 서방 7개 회원국이 참여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이후 제한적 재개 공조에 머무르면서 제도적 운영의 한계를 나타냈다. 이러한 다자 거버넌스의 정체는 북극해 연안 국가 간의 정례적 해양 데이터 교환 및 환경 모니터링 공조 체제를 감소시킴으로써 역내 작전 환경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2) Kelsey A. Frazier, "Security-Centered Science Diplomacy: A Proposed Framework for Future US-Russian Collaboration in the Arctic," *Journal of Arctic Security* Vol. 3 (2026), p. 88.

3) The Royal Society and AAAS, *New Frontiers in Science Diplomacy: Navigating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London: The Royal Society, 2010), pp. 4-11, 15.

4) Kelsey A. Frazier(2026), *op. cit.*, p. 89.

요인이 된다. 상대 진영의 의도와 기동 계획을 객관적으로 식별하기 어려워진 정보의 불투명성은 접경 해역에서의 사소한 해상 사고나 오인 기동이 당사국들의 본래 의도와 무관하게 우발적 긴장 고조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적 취약성을 내포하며, 역내 정보 비대칭성을 심화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2) 영구동토층 해동과 보건 및 생물 안보 위험

북극권 내 다자 소통 체제의 약화는 기후 변화가 초래하는 비전통적 위험 요인과 결합하면서 역내 보건 및 생물 안보 불확실성을 확대하는 요인이 된다. 기후 온난화에 따른 영구동토층 해동(Permafrost Thaw) 현상은 토양이나 동물 사체 등에 장기간 잔존할 수 있는 탄저균 포자의 노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극지 해역의 보건 안보적 취약성을 가중하는 환경적 변수이다. 과거 동결되었던 유기물이 지표면 밖으로 노출되는 과정은 역내 감염병 감시 체계가 정제된 상황과 맞물려 비전통 안보 위험을 심화시키는 구체적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러시아 야말반도에서 발생한 탄저병 확산 사례는 이러한 비전통 안보 위험의 복합성을 입증하는 구체적 지표이다.⁵⁾ 당시 발생한 탄저병으로 인해 해당 지역에서 순록 2,650마리가 감염되고 2,350마리가 폐사하는 대규모 가축 피해와 함께 인체 감염 사례가 공식 보고되었다. 관련 연구들은 이 현상의 원인을 단일 기후 변수에 국한하지 않고, 극지방의 이상고온 현상과 영구동토층 해동, 그리고 지역 내 순록 백신 접종 중단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데이터와 감시 체계의 공백은 극지방의 생물 안보 위험이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니며, 역내 안보 환경 관리를 위해 객관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공유 채널이 확보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3) 해상 통항량 증가와 선박 매개 위해 요인

북극항로의 해빙 감소와 항행 가능 기간의 확대는 역내 선박 통항량의 급증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물리적 변수로 작동한다. 이러한 해상 통항량의 증가는 선박 평형수와 선체 부착생물을 매개로 한 유해 수생생물 및 침입 수생종의 유입 위험을 고조시키는 원인이 된다.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평형수관리협약」⁶⁾과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⁷⁾은 이러한 생태학적 위해 요인의 차단과 이동 최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대표적인 국제 통제 규범이다. 이들 규범은 일반적인 해양환경 보호와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해 고안되었으나, 다자간 정보 공유 채널이 약화된 현 안보 지형에서

5) Ekaterina Ezhova et al., "Climatic Factors Influencing the Anthrax Outbreak of 2016 in Siberia, Russia," *EcoHealth*, Vol. 18, No. 2 (2021), p. 218.

6) 2004년 「선박평형수관리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2004, 약칭 BWM 협약)」을 채택하였고, 국제적 비준 과정을 거쳐 2017년 9월 8일부로 발효되어 현재 국제 규범으로 작동하고 있다.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London: IMO, 2004), pp. 2-5.

7) IMO가 국제적 통제 기준으로서 별도로 제정한 「2023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2023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 약칭 2023 Biofouling Guidelines)」으로 다자간 방제 규범을 제시하고 있다.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23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 Resolution MEPC.378(80), adopted July 7, 2023, pp. 3-5.

는 역내에 전개된 각국 해군 자산의 작전 환경 안정성 및 군 수송 인프라의 안녕을 저해할 수 있는 비전통 안보 변수로 그 영향력이 확장되는 추세이다.

특히 베링해와 축치해 등 미·러 접경 해역에서 발생하는 해양 위해 생물 및 병원체(Pathogens)의 확산은 국가 간 지정학적 갈등 여부와 무관하게 역내 군 및 민간 해양 활동 전반에 실질적인 불안정 요인을 제공한다. 특정 해역에 침입 수생종이 정착하거나 외래 병원체가 확산할 경우, 이는 장기적으로 군용 함정의 선체 효율 저하, 냉각 시스템 장애, 또는 작전 기지 주변 해역의 생물학적 오염을 유발하여 군 자산의 정상적인 임무 보장 여건에 간접적인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IMO의 환경 규범에 명시된 데이터 수집 및 관리 기준은 환경 보존의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며, 극지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이하 MDA) 체계와 연계되어 다자간 전략 정보 비대칭성을 완화하고 해양 안보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3. 과학 외교의 안보적 전환과 북극 군사 환경 협력(AMEC)의 선례

(1) 전통적 과학 외교의 전개와 비군사적 협력 모델

전통적 과학 외교는 냉전기와 탈냉전기라는 지정학적 긴장 속에서도 국가 간 갈등을 완화하고 과학 자료 공유와 환경 협력을 촉진하는 유용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1957년 전개된 ‘국제지구물리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⁸⁾과 1991년 선언된 ‘북극환경보호전략(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AEPS)’⁹⁾은 이러한 협력 구조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다만 이들 사례는 군사 안보적 위험을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라기보다는, 과학 자료 공유와 환경 보호, 오염 감시 및 공동 연구를 중심으로 전개된 비군사적 협력 모델에 해당한다. 따라서 신냉전기 북극권에서 부상하는 복합 하이브리드 위협과 군사적 긴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비군사적 접근법을 넘어 과학기술 협력을 영역 인식, 위험 관리, 그리고 임무 보장과 결합하는 안보 중심의 과학 외교 패러다임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다.¹⁰⁾

8) 국제 지구물리 관측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IGY)은 1957년 7월 1일부터 1958년 12월 31일까지 18개월간 진행된 대규모 국제 과학협력 사업으로, 67개국 과학자들이 지구, 극지, 대기, 태양 활동 등에 대한 공동 관측을 수행하였다. 냉전기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국제 과학자료 공유와 공동 관측 체계를 확대하는 계기가 되었으나, 군사·안보적 갈등을 직접 통제하는 구조가 아닌 순수 학술 영역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지닌다. 세부 정보는 다음 참조. John Uri, “65 Years Ago: The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Begins,” NASA, July 5, 2022, <https://www.nasa.gov/centers-and-facilities/johnson/65-years-ago-the-international-geophysical-year-begins/> (검색일: 2026.05.20.).

9) 북극환경보호전략(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AEPS)은 1991년 6월 14일 핀란드 로바니에미에서 북극권 8개국(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소련, 미국)이 채택한 포괄적 환경협력 전략이다. 북극 생태계 보호, 환경오염 감시·평가, 환경 비상대응 등을 주요 협력 분야로 제시하여 이후 북극이사회 출범의 제도적 기반이 되었으나, 외교·안보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은 배제된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선언문 전문은 다음 참조.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Arctic Environment,” Rovaniemi, June 14, 1991, https://library.arcticportal.org/1542/1/artic_environment.pdf (검색일: 2026.05.20.).

10) Kelsey A. Frazier(2026), *op. cit.*, p. 89.

(2) 북극 군사환경협력(AMEC)의 기술 중심 위험관리

이러한 안보 중심 과학외교의 실천적 선례로서 ‘북극 군사환경협력(Arctic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이하 AMEC)’ 체제는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MEC는 러시아 북서부 지역의 퇴역 핵잠수함, 사용후핵연료, 액체 및 고체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러시아, 노르웨이 3국 국방부 간에 추진된 군사환경협력 체제이다.¹¹⁾ 주요 이행 과제는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컨테이너 개발,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 기술, 고체 방사성 폐기물 감축 및 저장 기술, 방사선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인력 안전 확보 등을 포괄하였다. 이는 군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북극권의 방사성 오염 위험을 각국 국방 당국 간의 기술적 공조를 통해 완화하는 데 초점을 둔 실질적인 안보 거버넌스 모델이었다.

오늘날 러시아가 북극권 내에서 원자력 쇄빙선과 부유식 원자력 발전소 등 원자력 기반 인프라 운용을 지속하는 현실은, 과거 AMEC가 다루었던 위험 구조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¹²⁾ 이러한 원자력 인프라는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북극 해양 환경과 역내 해상 활동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과거 AMEC 체제가 보여준 기술 중심의 위험관리 협력 모델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는 외교적 대립이 심화한 상황 속에서도 비정치적이고 기술적인 위험 요인을 매개로 하여 제한적인 소통 경로를 확보할 수 있는 국방과학기술 외교의 실천적 과제가 될 수 있다.

4. 한국의 국방 안보 다변화를 위한 실천적 외교 전략

북극권의 지정학적 긴장 심화와 비전통 안보 위협의 부상은 한국의 북극정책을 해양·과학·산업 중심 접근에서 국방안보 및 기술안보 관점으로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간 한국의 극지정책은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극지 연구, 북극항로 활용, 국제협력 및 산업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

11) 북극 군사환경협력(Arctic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AMEC)은 1996년 9월 26일 미국 국방부, 노르웨이 왕국 국방부, 러시아연방 국방부 간 공동선언을 통해 출범하였다. 본 협의체는 북극 내 군사활동과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접촉 및 협력의 틀을 수립하고, 방사성·화학적 오염 등 군사활동이 북극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예방·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선언문 전문은 다음 참조. U.S. Department of Defense, Royal Ministry of Defence of the Kingdom of Norway, and Ministry of Def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laration among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oyal Ministry of Defence of the Kingdom of Norway, and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rctic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signed at Bergen, September 26, 1996, pp. 1-3, https://www.denix.osd.mil/international/denix-files/sites/28/2016/05/02_Declaration.pdf (검색일: 2026.05.20.).

12) AMEC는 러시아 북서부의 퇴역 핵잠수함, 사용후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러시아·노르웨이 3국 국방부 간 군사환경협력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주요 사업은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컨테이너 개발, 액체 방사성 폐기물 처리기술, 고체 방사성 폐기물 감축·저장기술, 방사선 모니터링 및 인력 안전 등을 포함하였다. 세부 내용은 다음 문헌 참조.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Environmental Security, Program Plan and Report on Proposed Obligations for the Arctic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 FY 1999,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1999; Dieter Rudolph, Ingjerd Kroken, and Viktor Sheremeteev,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in Russia’s Northwest and Far East,” *WM’01 Conference*, Tucson, Arizona, February 25-March 1, 2001, pp. 1-2.

어 왔으나, 복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방과학기술 기반 협력 체계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였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은 주요 안보국의 최근 전략적 동향에서도 확인된다. 미국의 「2024 북극 전략」은 북극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 영역 인식(all-domain awareness), 미사일 경보, 극지 연구,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협력 강화를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¹³⁾ 이는 다자간 기술 협력과 과학 자산의 결합이 현대 극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 부상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한국 역시 전영역 인식 및 MDA, 화생방 방호, 방사선 탐지 등 관련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활용하여 북극권 비전통 안보 협력에 참여하는 안보 중심 과학외교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 극지 해양영역인식 강화를 위한 다자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우선 MDA 역량 강화를 위해, 북극 해역의 선박 활동 증가와 연계되는 생물학·생태학적 안보 위험에 대해 한국의 기술적 기여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본 IMO의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은 선박을 매개로 한 침입 수생생물, 유해 수생생물 및 병원체 이동을 관리하기 위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하며, 한국이 관련 기술협력 방안을 제안할 수 있는 규범적 근거를 제공한다. 한국은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극지 해역의 선박 활동, 생물학적 위해 요인, 해양 환경 변화를 감시 및 평가하는 기술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정보통신기술(ICT)과 민군 해양 데이터 융합 역량을 활용하여, 극지 통항 선박의 이동 경로, 평형수 관리 기록 및 선체부착생물 관리 정보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다자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 제안이 가능하다. 이는 극지 MDA 분야의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이 참여하는 실천적 경로가 될 수 있다.

(2) 한국형 국방과학기술 외교 모델 수립 및 기능적 협력 채널 확보

또한, 러시아 북서부의 노후·퇴역 핵잠수함, 사용후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과거 AMEC가 보여준 기술 공유와 환경안보 협력 모델을 한국형 국방과학기술 외교 모델 설계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국방 분야의 화생방 방호 역량, 방사선 탐지 및 오염조사 기술, 극한 환경 대응 기술은 북극권 국가들과의 기능적 소통 경로를 확보하는 실천적 기반이 된다. 이러한 비전통적이고 기술적인 안보 위험 완화를 매개로 협력 경로를 확장하는 국방과학기술 중심의 과학 외교는, 신냉전적 경쟁 구도 속에서 북극권의 비전통 안보 위험관리와 소통 채널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향후 한국의 북극 관여 방식을 다각화하고 국방 안보의 외연을 실질적으로 확장하고 실현하는 유용한 대안이 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이후 심화한 북극권의 지정학적 긴장과 정보 비대칭성 속에서, 한국의 북극 정책이 나아가야 할 외교와 안보적 방향을 국방과학기술 중심의 과학 외교

13)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pp. 11-17.

관점에서 모색하였다. 전통적으로 해양수산부 주도의 극지 연구, 북극항로 활용, 국제협력 및 산업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어 온 기존 극지 정책은 기후 변화와 신냉전적 대치 구도가 결합하며 발생하는 복합적 비전통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었다. 영구동토층 해동에 따른 보건 및 생물 안보 위협의 가시화, 선박 활동 증가와 연계된 유해 수생생물과 병원체 유입 위험, 러시아 북서부의 노후 및 퇴역 핵잠수함, 사용후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험은 한국의 국방 안보와 기술 안보 역량을 북극 협력 의제와 연계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러한 위협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본 연구가 제시한 실천적 국방과학기술 외교 전략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요약된다. 첫째, MDA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 ICT와 민군 해양 데이터 융합 역량을 결합하는 방안이다. IMO의 「선체부착생물 관리지침」과 「선박평형수관리협약」을 규범적 근거로 삼아, 극지 통항 선박의 이동 경로, 평형수 관리 기록 및 선체부착생물 관리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다자간 데이터 공유 플랫폼 구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는 북극권의 MDA 협력 수요에 대한 기술적 기여이자, 관련 다자협력 메커니즘에 한국의 국방과학기술 역량이 참여할 수 있는 실천적 경로가 될 수 있다.

둘째, 과거 AMEC 체제가 보여준 기술 공유 선례를 참고하여 러시아 북서부의 노후 및 퇴역 핵잠수함, 사용후핵연료, 방사성 폐기물 관리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기술적 소통 채널을 설계하는 방안이다. 한국 국방 분야의 화생방 방호 역량, 방사선 탐지 및 오염조사 기술은 북극권 국가들과의 실무적 소통 경로를 개척하는 유용한 자산이 될 수 있다. 군사적 대치 상태 속에서도 비정치적 위험관리와 기술적 위험관리를 매개로 협력 경로를 확보하는 국방과학기술 중심의 과학외교는 한국의 북극 관여 방식을 다변화하는 잠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북극 과학 외교는 학술 교류나 환경 감시 중심의 기존 접근을 넘어, 국가가 보유한 국방과학기술 역량을 북극권 비전통 안보 위험관리와 소통 경로 확대에 전략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은 신냉전적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안보 다변화를 실천하고, 극지방 하이브리드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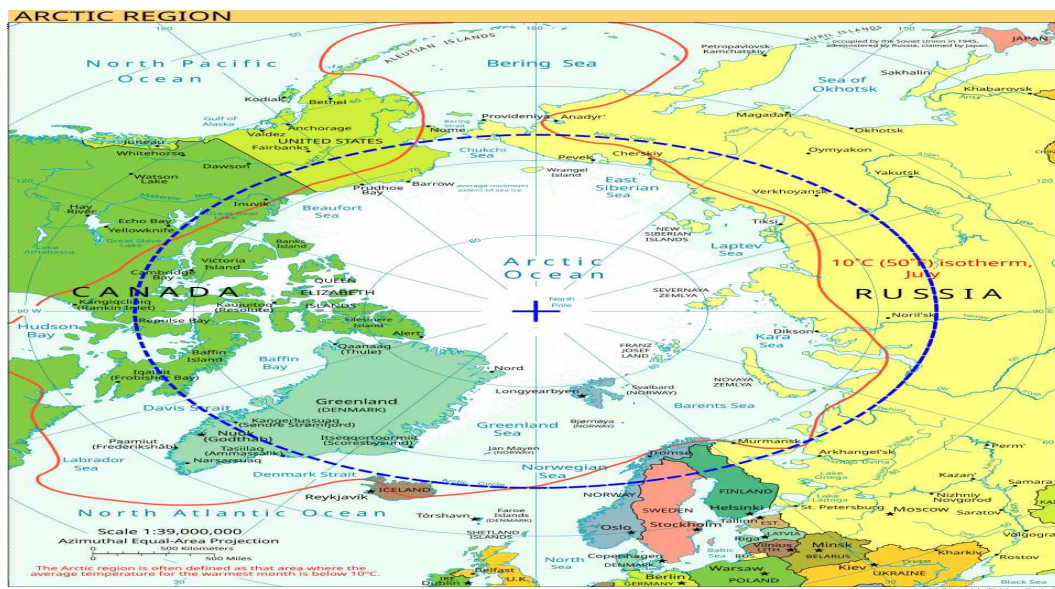
[참고 문헌]

- 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trategy. "Declar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Arctic Environment," Rovaniemi, June 14, 1991. https://library.arcticportal.org/1542/1/artic_environment.pdf (검색일: 2026.05.20.).
- Ezhova, Ekaterina, et al. "Climatic Factors Influencing the Anthrax Outbreak of 2016 in Siberia, Russia," *EcoHealth*, Vol. 18, No. 2, 2021, pp. 217-228.
- Frazier, Kelsey A. "Security-Centered Science Diplomacy: A Proposed Framework for Future US-Russian Collaboration in the Arctic," *Journal of Arctic Security*, Vol. 3, No. 1, 2026, pp. 78-95.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allast Water and Sediments*, London: IMO, 2004, pp. 1-38.
-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 "2023 Guidelines for the Control and Management of Ships' Biofouling to Minimize the Transfer of Invasive Aquatic Species," Resolution MEPC.378(80), adopted July 7, 2023.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65 Years Ago: The 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Begins," NASA, July 5, 2022. <https://www.nasa.gov/centers-and-facilities/johnson/65-years-ago-the-international-geophysical-year-begins/> (검색일: 2026.05.20.).
- Rudolph, Dieter, Ingjerd Kroken, and Viktor Sheremeteev.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on Radioactive and Non-Radioactive Waste in Russia's Northwest and Far East," WM'01 Conference, Tucson, Arizona, February 25-March 1, 2001.
- The Royal Society and AAAS. *New Frontiers in Science Diplomacy: Navigating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London: The Royal Society, 2010, pp. 1-32.
- The White House. "Executive Order 14024 of April 15, 2021: Blocking Property With Respect to Specified Harmful Foreign Activities of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Federal Register, Vol. 86, No. 73, 2021.
- U.S. Department of Defense, Office of Environmental Security. *Program Plan and Report on Proposed Obligations for the Arctic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Program FY 1999*,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1999.
- U.S. Department of Defense, Royal Ministry of Defence of the Kingdom of Norway, and Ministry of Def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Declaration among the Department of Defens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Royal Ministry of Defence of the Kingdom of Norway, and the Ministry of Defence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Arctic Military Environmental Cooperation," signed at Bergen, September 26, 1996.
-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Department of Defense Arctic Strateg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Defense, 2024.

한북극 민족 네네츠인의 종교문화¹⁴⁾

김자영
(원광대학교)

1. 서론



[그림1]

(https://upload.wikimedia.org/wikipedia/commons/thumb/3/31/Arctic_circle.svg/960px-Arctic_circle.svg.png)

한북극 지역은 이누이트, 알류트, 유픽, 사미, 네네츠, 코랴크, 야쿠트족 등 40여개 이상의 토착민들의 삶의 터전이다. 이들은 북극지역에서 오랜 시간 엄혹한 자연과의 극도의 조화를 통해 자신들만의 문화를 일구어왔다. 이 중 네네츠족은 전통적으로 러시아 북부의 툰드라 지역에서 순록 유목생활을 하는 민족으로, 2023년 러시아 인구조사 기준으로 49,787 명의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다. (Демографическая ситуация в районах Крайнего Севера, Н. О. Плешкова Главная > Том 3, № 2 (2025) 45-54)

네네츠족은 1세기 이후 극지방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과정을 거치면서 북부 우랄산맥과 야말반도에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랄어족 사모예드어파에 속하는 네네츠족은 북극해와 툰드라가 만나는 혹독한 환경을 가진 곳에서 수세기 이상 살아왔다. 네네츠족의 영토는 시베리아 서부 메젠 강으로부터 시베리아 동부지역 파시나 강의 왼쪽 지류까지 이어지는 유럽툰드라와 삼림툰드

14) 이 원고는 2025년 10월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추계공동학술대회 <북극, 항로와 소수민족>에서 발표한 글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라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을 정도로 광활했다. 이들은 오늘날 사모예드어를 사용하는 러시아 북극 민족들 중 가장 크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사람들로 현재 네네츠 자치구, 야말-네네츠 자치구, 크라스노야르스크 타이미르 반도(돌간-네네츠 자치구), 코미공화국, 한티-만시 자치구 등에 살고 있다.

네네츠족은 크게 툰드라 네네츠인과 삼림 네네츠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두 집단 간에는 방언의 차이가 있고 규모 면에서도 삼림 네네츠인의 경우 그 수가 1500여 명 정도에 불과하다. 그러나 두 집단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는 데에는 무리가 없으며 무엇보다 순록사육을 근간으로 하는 유목 민문화가 전통적 삶의 방식이라는 점에서 하나의 문화권으로 볼 수 있다. (Музей антропологии и этнографии имени Петра Великого РАН Перевалова Е.В., доктор исторических наук, ведущий научный сотрудник Центра арктических исследований МАЭ РАН)
본 글에서는 네네츠족의 전통적인 종교적 문화와 세계관의 원형을 탐구하고, 러시아 및 소련시대를 거쳐 다시 ‘문화부흥의 시대’를 맞고 있는 21세기 현대 네네츠인의 문화 혼종성을 문화기술지적 방법을 통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2. 본론

1). 네네츠족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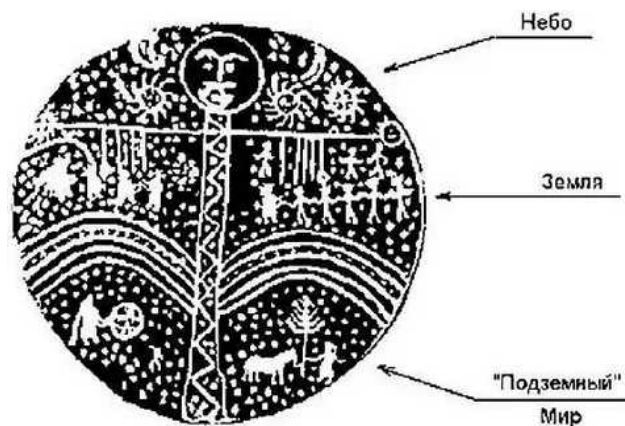
‘네네츠’라는 이름은 Ненец(네네츠) - человек(인간)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 네네츠인이 자민족의 공식 명칭을 ‘네네츠’라고 정한 것은 20세기 초반 사회주의 혁명으로 소비에트연방이 성립된 이후로 이전에는 네네츠 이외에도 хасава(하사바) - мужчина(남자), ненэй ненэць(네네이 네네츠) - настоящий человек(진정한 사람) 등의 이름으로 스스로를 불렀다고 전해진다. 극북지역으로 진출하면서 네네츠인과 만나게 된 러시아인들은 소련 혁명 전에는 이들을 사모예드나 유라크라고 부르기도 했다. 19세기에 사모예드는 네네츠인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북방 토착민족들인 응가나산 족이나 에네츠족을 통틀어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으나 관용적으로는 네네츠인을 의미하는 명칭이었다.

19세기 러시아인은 이 민족을 왜 사모예드(самоед)라고 불렀을까. 명칭의 어원은 само-ед(сам себя едящий 스스로를 먹는 자), сам-один(одинокко живущий 홀로 사는 자), семго-ед(едящий семгу 연어를 먹는 자)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교회 슬라브어에서는 이 명칭을 ‘식인종’이라는 뜻으로 구분하고 있기도 하다. 혹은 ‘사미족의 땅’이라는 의미에서 그 어원이 출발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다양하지만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비 학술적인 추론으로 남겨져 있다.

네네츠족은 전통적으로 주로 순록목축과 어업, 사냥에 종사하며 유목생활을 했다. 엄혹한 자연

1) 러시아 지역으로 한정하여 본다면 2000년대까지 ‘시베리아·극동 소수민족’이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였으나 점차 토착민/토착민족/토착소수민족을 혼용하여 사용하는 추세이다. 이때 ‘민족’이란 말은 엄밀히 말하면 종족(부족 tribe)과 조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고, 근대화 과정에서 국민국가의 산물로 알려진 ‘민족’이란 단어의 사용과 관련하여 연구자들 개인의 관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원주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이 ‘원주민과 부족, 준부족’을 모두 포함시키는 것처럼 러시아 원주민의 다양한 공동체를 지칭할 때 혼용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글에서는 네네츠족, 민족, 네네츠인 등의 용어를 동일한 집단을 가리키는 동의어로 혼용할 것이다.

및 지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이들은 자연의 힘에 의존하고 조화를 이루는 방식이 삶 전반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네네츠인에게 있어 자연과 주변의 모든 환경은 서양의 그것처럼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나와 똑같이 살아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이들의 전통적인 신앙체계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우주만물에 영혼이 있다는 정령숭배 사상 즉 애니미즘, 신의 의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매개체가 필요한 샤머니즘적 세계관을 기반으로 종교적 문화를 형성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이러한 종교적 관념은 동식물, 돌, 물, 자연현상 등 나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모든 환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아 숨 쉬고 이해할 수 있는 존재이며, 인간은 그 자연만물의 일부일 뿐이라는 고유의 생태철학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



[그림2] 삼중구조의 우주관 (출처:

[https://yandex.ru/images/search?from=tabbar&text=%D1%82%D1%80%D0%BE%D0%B5%D1%81%D0%B%D0%BE%D0%B9%D0%BD%D1%8B%D0%B9%20%D0%BA%D0%BE%D1%81%D0%BC%D0%BE%D1%81%20%D0%BD%D0%B5%D0%BD%D1%86%D0%B5%D0%B2\)](https://yandex.ru/images/search?from=tabbar&text=%D1%82%D1%80%D0%BE%D0%B5%D1%81%D0%B%D0%BE%D0%B9%D0%BD%D1%8B%D0%B9%20%D0%BA%D0%BE%D1%81%D0%BC%D0%BE%D1%81%20%D0%BD%D0%B5%D0%BD%D1%86%D0%B5%D0%B2))



[그림3] 네네츠인과 신, 신성한 나무 (출처:

<https://yandex.ru/images/search?from=tabbar&text=%D1%87%D1%83%D0%BC%20%>

2). 전통적인 신앙 체계와 영적 문화

(1) 우주관과 신들

네네츠족의 천지창조 개념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세상이 아비새에(Гагара-птица loon bird) 의해 창조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가장 강력한 네네츠인의 신 ‘눔’과 ‘응아’가 있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네네츠인에게 우주는 상층, 중층, 하층의 삼중구조가 수직적으로 연결된 다중구조의 개념이다. 상층 세계는 지구 위에 위치하며 신들이 사는 일곱 개의 하늘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다. 중층 세계에는 초자연적인 존재들, 사람과 동물, 숲, 물 등 모든 자연환경과 각각에 깃들어 있는 정령, 인간의 수호자들이 살고 있다. 자연의 힘에 대한 의존은 전통적인 세계관을 형성했는데, 이는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와 보이지 않는 영혼이 단일 본성의 상호작용하는 생물이라는 개념이다. 하층 세계는 지구 아래에 위치하고 질병과 죽음을 가져오는 악령이 사는 일곱 개의 층으로 구성된다.

눔은 네네츠에게 하늘과 천상의 신으로 선하고 정의로운 신이다. 눀은 전능하고 긍정적이며 윤리적이다. 눀은 천상에서 순록을 몰고 천막집을 세운다. 눀과 함께 세상에 온 응아는 눀과는 대척점에 있는 신으로 지하세계에서 죽음과 질병을 관장한다.

중간세계의 사람들은 두 명의 수호신인 밝은 어머니-대지 ‘아이바셰드 디얀카타’와 죄인 ‘냥스 단카타’의 지배를 받는다. 전자는 인간을 선한 행실로 인도하고, 후자는 죄악 속에 살며 인간의 악을 조종한다.



[그림4] 신성한 순록

(출처: <https://yandex.ru/images/search?from=tabbar&text=священное%20дерево%20ненцев>)



[그림5] 신성한 나무

(출처: <https://yandex.ru/images/search?from=tabbar&text=священное%20дерево%20ненцев>)

(2) 동식물 숭배

사미족과 마찬가지로 순록과 곰을 숭배했는데 주로 순록에 대한 숭배를 볼 수 있다. 순록은 순수함의 화신으로 여겨져 각 가정에는 특별하게 여기는 ‘신성한 순록’을 두었는데, 보통 하얀 순록이 선택되어 그 옆구리에 정령이나 태양의 형상을 그리고 귀와 뺨에는 붉은색 리본을 장식했다. 철갑상어, 모캐(버릇), 강꼬치고기와 같은 특정 어종도 숭배되었다. 반대로 응가가 만든 것으로 생각한 늑대는 이름조차 소리 내어 부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동물이었다.

낙엽송을 빛을 상징하는 나무로 여기며 숭배하여 천이나 동물 가죽, 제물로 바치는 순록의 뿔 등을 매달아두었지만 가장 신성시한 나무는 자작나무이다. 자작나무는 네네츠인의 생활용품과 치료제(수액), 천막용 연료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는 점과 연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밖에도 눈사태를 걱정하거나 거친 우랄산맥을 여행할 때마다 정령에게 제물을 바쳐 안전을 기원하곤 했다.

(3) 샤먼

네네츠인의 종교문화 속에서 신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를 연결하는 것은 주술사, 점쟁이, 마법사인 샤먼 ‘타디베(Тадйбе)’이다. 샤먼들 사이에도 일정한 위계가 있어 가장 영향력 있는 샤먼은 비두탄이었다. 최면능력과 최고의 정령 및 신들과 소통하는 능력을 가진 자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었다. 야냥기-타데바는 질병과 날씨, 관습과 도덕의 준수를 감독하는 역할이었다. 샤먼 삼브도르타는 죽은 자의 영혼과 소통하고 그를 안식의 세계로 인도할 수 있었다. 광활한 북극의 숲과 툰드라 지대를 혼자 혹은 소규모의 공동체와 함께 이동하는 것이 일상인 네네츠인에게 있어 죽은 자의 영혼이나 만물의 정령들이 해를 끼치지 않도록 그들이 안식을 취하는 것

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고, 이를 돕는 것이 샤먼의 역할이었다. 이외에 샤먼 세브타나, 일타나가 있어 삼브도르타와 함께 병자를 돕고 생명과 운명을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3) 일상적 삶 속에서 발현되는 종교문화

(1) 자연과의 상호작용 및 존중

유목민인 네네츠족에게 순록과 자연환경은 생존의 근원이었다. 자연현상과 환경의 모든 요소를 정령(영)이 지배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냥, 목축, 이동 등 모든 일상 활동에서 자연에 대한 존중과 순응을 우선시 했다. 이는 자원을 남용하지 않고 자연의 질서를 보존하려는 태도로 나타났다.

(2) 길흉화복과 신의 역할

최고 신 늑은 선하고 올바른 행동에 대해 순록의 안전, 성공적인 사냥 등으로 보상하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빈곤과 재앙으로 벌한다고 믿었다.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를 늑의 자비 혹은 처벌과 연결해 생각했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네네츠인이 도덕 윤리적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3) 샤먼

샤먼은 신 그리고 영들과 소통하며 그들을 달래어 인간에게 복을 내리기를 빌고 그들의 의견을 인간에게 전달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수행했다. 이들은 병을 치료하고, 사냥의 성공을 빌며, 재앙을 막는 등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과 신, 인간과 영혼의 세계를 중개했다. 샤먼은 축제나 기도 등 각종 의례의 주관자였다.

(4) 제물 봉헌과 순록 제물 의식

네네츠인은 신과 영에게 제물을 바쳐 그들을 달래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했다. 순록은 네네츠인 삶의 중심이자 가장 귀중한 자원이었으므로 중요한 의례에서 순록을 도축하여 바침으로써 신과 영의 호의를 얻고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고자 했다. 보통 네네츠인의 성소에서 샤먼이나 가족의 가장의 주관 하에 순록을 제물로 바치고 그 고기를 공동으로 나누어 먹는다.

(5) 신화의 의례화

네네츠인의 종교적 세계관 속 창조신화와 홍수신화와 같이 중요한 신화적 사건은 부족의 주요 명절이나 성지에서의 의례행위로 연결되어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네네츠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우주의 질서를 재확인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6) 명절, 축제

▷ 순록의 날(День оленевода 8월2일): 순록은 단순한 가축을 넘어 자연의 정령의 일부이거나 그들의 선물로 여겨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고 성대한 명절로, 순록 유목민의 성공적인 겨울

나기와 새로운 유목 계절의 시작을 기념한다.

- ▷ 순록 목동의 날(네네츠 마슬레니차): 일반적으로 3월 말에서 4월초에 시작되어 순록썰매 경주, 네네츠 전통 운동경기, 전통 노래와 춤 공연, 친목다지기와 순록고기와 베리류 등으로 이루어진 식사 등의 행사가 치러진다.
- ▷ 강 건너기 축제: 순록 떼를 이끌고 강을 건너는 풍경 자체가 의식이자 축제이며, 강 건너기 전후로 안전을 기원하는 샤머니즘 의식이나 공동 식사가 진행된다.



[그림6] 강 건너기 (출처: <https://collection.ethnomuseum.ru/entity/OBJECT/88730>)

이러한 행사들은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고, 전통 문화와 순록 유목 생활방식을 다음 세대에 전수하는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7) 각종 길흉의 판단 및 타부

순록과 사람의 이동경로를 결정하거나 좋은 날씨를 기원할 때 등 샤먼의 예언에 따라 길흉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 순록의 도축방식 역시 종교적 금기사항에 따라 엄격히 지켜진다.

(8) 어업

툰드라와 바다, 강은 네네츠인의 또 다른 주요 생계의 터전이다. 어업활동 역시 신과 정령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업 전 안전과 성공을 비는 간단한 의례를 행하고, 어업이 종료된 후에는 잡은 물고기의 일부를 정령에게 바친다. 종교적으로 금하고 있는 특정 어획도구나 어종, 장소에 대한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정령이 생계유지를 방해할 수 있다고 믿었다.

네네츠인의 전통적 종교문화는 단순한 믿음을 넘어 이동, 경제활동, 혹독한 자연에서 안전하게

살아남기 위한 생존 기술, 도덕적 규범, 금기와 기원 등 유목생활 전반을 규정하는 핵심적 가치의 토대라고 할 수 있다.

4) 러시아와의 만남: 원형과 혼종

러시아인이 북극지역으로 진출해 네네츠인을 비롯한 북극 토착민족들과 접촉하기 시작한 것은 1641년 러시아정교회 선교부가 야쿠츠크에 도착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8세기 초반 표트르 대제가 북방지역에 대한 제정러시아의 영향력 강화를 목적으로 <북방지역 토착민족들의 정교회 세례>를 위한 법령을 채택하면서 공격적인 기독교화 및 러시아동화정책이 시작되었다.

선교와 세례는 단순히 신앙의 전달 뿐만 아니라, 선교대상의 삶의 방식, 음식(북극유목민의 순록 피와 생고기 섭취는 건강과 직결된다), 사회적 관계의 전통적 형태, 종교와 신화라는 상징성을 기반으로 하는 세계관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의미의 전통문화와의 단절 및 민족정체성의 포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문화의 변형을 동반한다.

1707년 필로페이(Филофей Лещинский) 대주교는 표트르 1세의 칙령에 따라 기독교 전파와 우상파괴를 병행하면서 네네츠인이 러시아정교회 세례를 받고 개종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러한 첫 번째 시도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다:

- (1) 기후조건 때문에 선교의 성공률이 떨어짐
- (2) 선교사의 잦은 교체로 네네츠인과의 신뢰관계 구축 불가능
- (3) 선교사들이 토착민의 언어를 알지 못함
- (4) 정착하여 사목할 교회의 부족
- (5) 민족전통 및 전통신앙 의례가 기독교 신앙과 양립 불가능 등의 이유가 그것이다.

1920년대-1930년대까지 소련 정권이 수립되면서 모든 종교에 대한 국가적 ‘무신론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는 특히 소수민족의 전통종교에 맞서기 위해 설계되었고, 이후 토착민 세속화의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자리 잡게 된다.

소련 정부는 우선적으로 샤먼을 숙청하여 샤먼들의 역할을 급격히 감소시켰다. 성소를 파괴함으로써 네네츠인이 숭배의식을 치르지 못하게 막았다. 결과적으로 무신론 교육과 사회주의 건설은 네네츠인의 종교적 정체성을 혼란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곧 민족 자체의 전통적 정체성 및 영적·사회적 문화의 변화를 초래했다.

소비에트 시절 네네츠인에 대한 세속화 작업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 (1) 구조적 세속화: 종교기관의 파괴 및 샤먼 숙청으로 구조적 변화를 꾀함
- (2) 주관적 세속화: 교육과 사회주의 사상의 확산으로 개인의 종교적 신념 및 관행의 희석 및 변화

그러나 네네츠인을 포함한 토착민족들의 전통 종교의 완전한 단절이나 러시아화, 기독교화와

같은 러시아에서 소련으로 계승된 ‘서구 이방인’의 계획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으나 문화 혼종성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1) 샤머니즘의 은폐 및 기능의 변화: 샤먼의 숫자가 현저히 줄었고 그 공식적 역할 역시 축소되었으나, 대신 가족이나 소규모 공동체별로 가족이나 순록 떼의 안전을 기원하는 의식을 치르는 개인적 역할을 수행하며 그 명맥을 이어나갔다.

(2) 이중신앙의 발생: 민족 종교의 정체성이 와해되면서 많은 젊은 네네츠인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명확히 정의하지 못하게 되었다. 전통적인 종교 즉 영적문화와 세계관이 제거된 공간은 샤머니즘, 애니미즘과 정교가 뒤섞인 이중신앙 형태의 혼합주의로 변모했다.

(3) 네네츠인의 종교적 정체성은 곧 민족 고유의 본질적 정체성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의 희석과 변화가 소련에 의한 유목민의 도시정착 확대와 연계되면서 비종파적 종교문화, 정체성과 민족문화의 혼합주의가 발생하며 문화의 독창성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된다.

3. 결론

혹독한 자연, 지리적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환북극 토착민으로서 네네츠족이 전통적으로 자연과의 조화, 순응, 존중을 생존전략의 근간에 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령숭배 사상과 샤머니즘을 바탕으로 하는 종교문화는 신앙을 넘어 네네츠인의 세계관과 가치, 삶의 양식과 연결되면서 민족 정체성의 본질을 이루었다.

제각각의 민족공동체가 계승하는 고유의 정체성은 공동체를 식별하고 독자적으로 생존하며 자연과의 유대감을 유지하는 근원적 힘이다.

제국러시아의 기독교화 및 러시아화 정책, 소비에트 시기의 무신론 교육과 사회주의 건설은 네네츠인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종교 및 영적문화와 완전히 단절하도록 만들지는 못했지만, 러시아 민족, 러시아정교적 세계관과의 혼합을 통해 종교적 정체성의 변형이 일어났다고 판단된다. 영적문화와 민족정체성의 합치가 극명한 북극 토착민 네네츠 문화의 특성상 이는 필연적으로 네네츠인 문화의 변형을 의미한다.

북방 토착민들은 1990년대 이후를 ‘문화부흥의 시대’라 칭하고 있다. 문화의 원형을 재인식하고 보다 완전하게 계승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 고유성을 되찾고 민족의 점진적 와해를 막고자 하는 것이다.

북극은 기후변화의 최전선이다. 수천 년간 이어온 생태적 지식과 전통적 유목민의 경험이 얼음과 토지의 변화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자연과 주변 환경과의 합일, 존중, 순응이라는 문화 원형으로의 회귀가 위기의 해답이 될지도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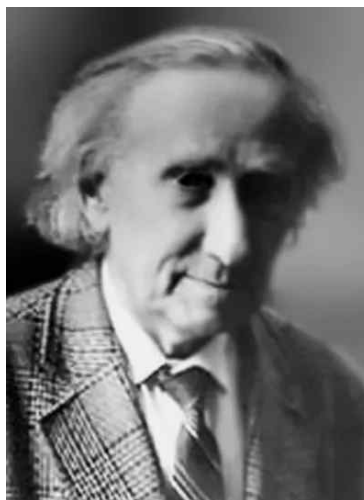
캄차카 탐험사 - 스타두힌 이야기 7

곽성웅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학술연구교수)

캄차카 반도(Камча́тский полу́остров, Kamchatka peninsula)는 북극에 인접한 지역으로 러시아에서는 북극의 관문이라 불리고 있다. 이 지역은 추코트카 지역(혹은 축치 반도)과 더불어 극동의 최북단에 위치해 있어 러시아 역사에서 캄차카의 발견은 ‘동쪽으로의 진군’과 ‘시베리아 정복’의 완결로 해석되곤 한다. 이번 호에서도 본 글은 계속해서 캄차카 탐험사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간다. 그리고 이 글은 러시아의 저명한 캄차카 역사 연구자인 보리스 페트로비치 폴레보이(Борис Петрович Полевой)의 기념비적인 저작 『캄차카 발견에 관한 새로운 성과들』(Новое об открытии Камчатки)¹⁾에서 발췌, 번역한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됐다.

그림 13. 보리스 P. 폴레보이



출처: “Полевой Борис Петрович,”

<https://bsk.nios.ru/enciklodediya/polevoy-boris-petrovich> (검색일: 2024.10.01).

1) Б. П. Полевой, *Новое об открытии Камчатки* (Петропавлоск-Камчатский: Издательство “Камчатский печатный двор,” 1997).

1. 1696년 이전 캄차카를 탐험한 러시아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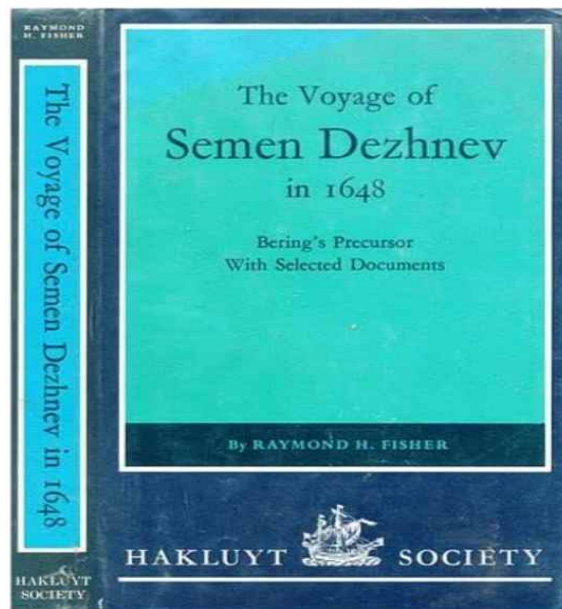
1) 미하일 스타두힌(Михаил Стадухин) - 일곱 번째 이야기

(이전 글의 마지막 부분에 일부 게재된 내용을 독자들의 원활한 이해를 위해 다시 한번 다음과 같이 반복해서 공유한다.)

드미트리 미하일로프(Дмитрий Михайлов)가 (미하일 스타두힌 포함) 12명의 병사들과 상공업자들을 위해 서명했고, 프타로이 가브릴로프(Второй Гаврилов)가 8명의 병사들과 상공업자들을 위해 서명했으며, 이반 가브릴로프 쿠클린(Иван Гаврилов Куклин)이 서명한 민장문서(Челобитье).

오랫동안, 저자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지만, 이 민장문서는 해외에서 더 잘 알려졌다(이는 미국의 저명한 역사학자인 레이몬드 피셔(Реймонд Фишер)²⁾에 의해 영어로 번역된 후 그 번역본이 1981년 런던에서 출간됐다). 그런데 구소련에서는 이 민장문서의 내용이 오직 소수에게만 알려졌다.³⁾ 해당 민장문서가 (구소련) 학계에 새롭게 기여한 바를 다음과 같이 짧게 열거한다.

그림 14. 1981년 런던에서 출간된 러시아 민장문서 번역본



출처: "The voyage of Semen Dezhnev in 1648 : Bering's precursor : with selected documents / [edited] by Raymond H. Fisher Hardcover,"
<https://www.amazon.com/voage-Semen-Dezhnev-1648-precursor/dp/B001NVHBHU> (검색일: 2026.01.11.).

2) Fisher Raymond H. The Voyage of Semen Dezhnev in 1648: Berings Precursor with selected documents. London. The Hakluyt Society, 1981. pp.(doc. N 23).

3)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Магидович И. П., Магидович В. И.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ткрытий. М., 1983. Т. 2. С. 393; Демин Л. М. Семен Дежнев. М., 1990. С. 154-156.

1. 과거인 1953년 지리역사학자인 레베데프(Д. М. Лебедев)와 슈메이코(Г. К. Шумейко)는 콜리마 지역 발견에 관한 이야기를 하며 다음과 같이 썼다: “스타두힌이 콜리마 강의 하구에 도달한 날짜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 ...”⁴⁾ 이제 우리는 북동부 시베리아의 역사에서 이 중요한 사건의 확실히 정확한 날짜를 전할 수 있다. 민장문서의 내용에서는 분명히 1643년 7월 7일 원정 참가자들이 바다에 있었고, 7월 15일에 그들은 이미 순록계 원주민 부락 근처의 콜리마 강에 있었다고 한다. 아마도 (당시의) 순록계 원주민들은 바다 주변의 축치족들과는 다르게 일반적으로 바다에서 얼마간 떨어진 툰드라 지대에서 유목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러시아인들은 순록계 원주민들과 콜리마 강 하구가 아니라 강의 하류 어딘가에서, 아마도 현재의 판텔레예브 산맥 지역(в районе Пантелеевой горы)에서 충돌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 지역의 명칭은 십중팔구 순록계 유가키르족(Юкагиры)인 판텔(Пантель)족의 이름에 따라 얻은 지명이다. 스타두힌과 그의 원정대원들은 순록계 원주민들과 조우한 지역에서부터 콜리마 강을 따라 배를 타고 알라이(Алай)의 유가키르족의 촌락(острожок)까지 올라갔는데 정확히 7월의 15일과 25일 사이의 10일 간이었다. 카자크인 이반 벨라나(Иван Веляна)의 기록에 따르면 원정대원들은 콜리마 강에 속한 하구에서 알라이의 마을까지 12일간 도보로 이동했다고 한다. 이에 기반하면 스타두힌과 그의 대원들이 콜리마 강 하구에 진입한 후 순록계 판텔족과 순록 목축시설(Кораль), ‘그들의 울루스 주민들’과 조우하기까지, 보다 정확히 말하자면, 2일이 걸렸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따라서 추정컨대 러시아인들이 콜리마 강 하구에 최초로 들어간 것은 대략 1643년 7월 12~13일 사이이다.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문헌에서는 아마도 1644년에 콜리마 강이 발견된 것 같다는 밀레르(Г. Ф. Миллер, 밀러)의 부정확한 주장이 자주 반복됐지만⁵⁾, 이것으로 콜리마 강 발견의 역사는 보다 정확히 보정됐다.

2. 콜리마 강 최초의 ‘담장이 둘러친’(с нагородней) 월동기지(зимовье), 다시 말해 요새(острожек)는 러시아인들이 분명 1643년 7월 30일에 콜리마 강 하류(Нижний)가 아닌 중류(СРЕДНИЙ)에 건설했음을 최초로 알아냈다. 17세기 문서고 서류에 관한 뛰어난 전문가이자 민속학자(этнограф)인 돌기흐(Б. О. Долгих)⁶⁾는 당시의 이러한 정착이 현재의 스레드네-콜림스크(Средне-Колымск) 지역에서 발생했었다고 결론내렸다.

17세기 중엽 콜림 지역 관련 문서에 관한 주의깊은 연구는 콜리마 강 최초의 행정구역(управление)이 위치한 곳은 지금까지 밀레르(밀러)가 주장했던 니즈네-콜림스크(Низне-Колымск)가 아니라 스레드네-콜림스크(СРЕДНЕ-КОЛЫМСК)의 월동기지-요새였음을 확인했다.⁷⁾

콜리마 최초의 촌락형 러시아 요새(방어형 월동기지)는 ‘알라이의 유가키르 부족’ 땅에 설치됐다. 이런 정보의 정확한 해석에 있어 국내 민속학자인 돌기흐(Б. О. Долгих)와 크레이노비치(Е. А. Крейнович)⁸⁾의 지역사(историко-ареальные) 연구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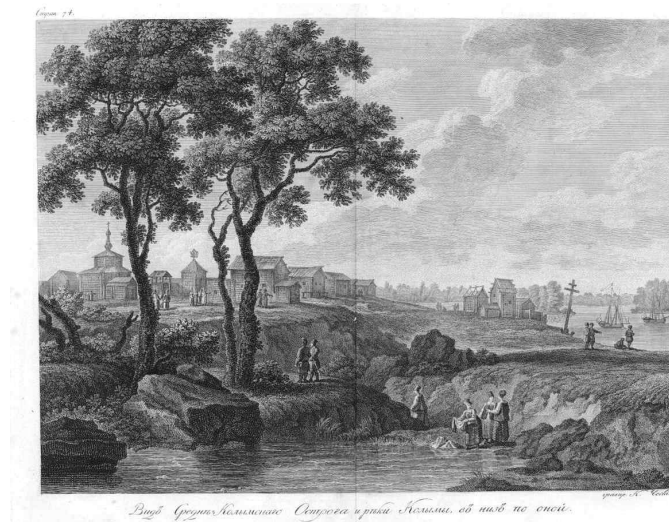
4) Сб.: Русские мореплаватели. М., 1953. С. 16.

5) Миллер Г. Ф. Описание морских путешествий по Ледовитому и по Восточному морям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учиненных // Сочинения и переводы к пользе и увеселению служащих. Кн. 1. СПб., 1758. С. 14. и др. 이 저작들은 레온티예프(В. В. Леонтьев)의 저작에 이르기까지 ‘인용’(включая)됐다: Очерк и истории Чукотк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Новосибирск, 1974. С. 77.

6) (역자주) 보리스 오스포비치 돌기흐(Борис Осипович Долгих, 1904~1971)

7) 다음의 논문에 자세히 나왔다: О местоположении первого рус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на Колыме // Доклады Ин-та географи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ркутск, 1962. Вып. 2. С. 68-75.

그림 15. 17세기의 스레드네-콜림스크 요새



출처: “Среднеколымску - 375 лет: Читайте самые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о городе в нашей фотоподборке,”

<https://ysia.ru/srednekolymsku-375-let-samyie-interesnye-fakty-o-gorode/>

(검색일: 2026.02.27).

돌기흐는 최초로 17세기 콜리마 지역에서의 유카기르 부족 형성 과정에서 유카기르 개별 부족의 지역 경제 활동(ареал хозяйствен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을 대략적으로 정의하기 위한 노력에 전념했다. 그는 17세기에 알라이의 (유카기르) 부족이 콜리마 강 중류에서 활동했다고 최초로 명시했다.⁹⁾ 크레이노비치의 연구는 알라이 부족이 대략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에 거의 바로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콜리마 알라이 부족의 ‘대(大) 동계형 (이동식) 천막’(большой зимний чум, 칸델니ме - Канд·эл·ниме)은 그 형태가 다소 변화했다: 러시아인이 차지한 지역 내 ‘올라이 부족의 삶’ 속에서 그 천막은 알라이 부족의 전통적인 유목산업 구역에 대체로 부합했다. 크레이노비치의 자료에 따르면 알라이 부족의 ‘순록계 주민들’(оленные люди)은 일년 중 상당 기간을 콜리마 강 중류에서 거주했고, 여름에는 예로부터 정립된 관습에 따라 오직 ‘우누베’(у:нубэ, 통행 구역)라 불리는 특정 지역의 경계 내에서 유목과 수렵을 할 수 있었다.¹⁰⁾ 크레이노비치는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연구하던 당시에 ‘알라이’ 부족의 우누베 경계를 충분히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¹¹⁾ 그의 정보에 따르면, 알라이 부족의 순록계 주민들은 콜리마 강을 따라 아래로 전혀 내려가지 않았고, 오늘날 야쿠트어로 앗타카(Ат·така)와 티미르

8) (역자주) 에루힘 아브라모비치 크레이노비치(Ерухим Абрамович Крейнович, 1906~1985)

9) Долгих Б. О. Родовой и племенной состав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в XVII веке. М., 1960. С. 410, а также: Полевой Б. П. Значение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аре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месте основания первого рус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на Колыме в 1643 г. // Народы и языки Сибири. Ареа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1978. С. 96-102.

10) Крейнович Е. А. Из жизни тундренных юкагиров на рубеже XIX и XX вв. // СНВ. Вып. XIII (1972). С. 66.

11) Там же. С. 67-68.

(Т-имир), 메나크탁(Мэнактак), 둘바(Дулба)로 불리는 호수들을 거쳐 콜리마 강 서쪽의 바다로 갔다. 이런 정보는 1645년 9월 30일 미하일 스타두힌이 야쿠츠크로 전한 이야기와 많은 면에서 일치한다: “그 코비마 강은 거대하고 폭이 넓습니다. 그 코비마 강에는 토착민들(иноземцы)과 흑담비(соболь)도 많습니다. 그 토착민들은 그 코비마 강에서 겨울을 나고, 여름에는 한 장소에서 머무르는데 도보로 갑니다. 그리고 순록계 원주민들은 장소 여기 저기와 호수들 사이를 유목합니다.”¹²⁾ 스타두힌이 이 보고서(заявление)를 작성했을 당시에는 콜리마 강에 오직 하나의 촌락형 러시아 요새 혹은 스타두힌이 직접 ‘방어형 월동기지’라 했던 것이 존재했다.¹³⁾ 이는 1643년 7월 30일 건립됐다. 이로부터 1647년 6월 15일 콜리마 지역 ‘최초의 (러시아) 주민들’(начальные люди)이라 할 수 있는 노보셀로프(П. Новоселов)와 가브릴로프(В. Гаврилов)가 이 방어형 월동기지에 관해 최초로 다음과 같이 전했다: “아노이(Аной) 방향 오른쪽으로부터 강 **아래쪽으로(В НИЗУ)**, 강물이 흐르는 아래쪽으로(**ВНИЗ ПЛАВУЧИ**), 아노이 강 하구에 새롭게 조세징수 월동기지가 건립됐다.”¹⁴⁾ 분명한 것은 여기에 니즈네-콜림스크 월동기지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있다는 점이다. 다시 한 번 확인하자면, 콜리마 지역 **최초의(ПЕРВОЕ)** 러시아인 촌락은 논쟁의 여지 없이 과거의 니즈네-콜림스크 월동기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세워진 현재의 니즈네-콜림스크보다 위쪽에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돌기흐(Б. О. Долгих)의 관점을 지지하며 이야기한다.

그림 16 보리스 오스포비치 돌기흐



출처: “Долгих, Борис Осипович,”

https://ru.wikipedia.org/wiki/%D0%94%D0%BE%D0%BB%D0%B3%D0%B8%D1%85,%D0%91%D0%BE%D1%80%D0%B8%D1%81_%D0%9E%D1%81%D0%B8%D0%BF%D0%BE%D0%B2%D0%B8%D1%87 (검색일: 2026.02.27).

12) РМ. С. 62.

13) Там же. С. 262.

14) Там же. С. 63.

3. 민정문서의 내용으로 이 역사적 원정에 참여한 23명 모두의 이름이 최초로 알려졌다. 그들 중 11명은 스타두힌의 대원이었고, 12명은 지란(Зырян)의 대원이었다.

민정문서에서는 1643년의 콜리마 원정에 미하일 스타두힌과 세몬 데즈노프, 드미트리 지란과 같은 러시아의 저명한 탐험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러시아 극지 해양 탐험가들이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프토르(Фтор) 혹은 프타로이 가브릴로프(Второй Гаврилов)는 콜림스크 요새(Колымский острожок)에서 오랜 기간 '지도자급 인사'(начальным человеком) 및 북동시베리아에 대한 여러 새로운 원정을 조직한 인물로 있는 후에 이 원정에 참여했다. 세몬 모토라(Семен Мотора)는 아나디르 강으로의 육로 원정을 최초로 주도했던 인물로 명성을 떨쳤다. 토미치 로만 이바노프 넴친(Томич Роман Иванов Немчин)은 드미트리 코필로프(Дмитрий Копылов)의 1636~1640년 원정과 안드레이 고렐리(Андрей Горелый)의 1641~1642년 아호타 강 원정에 참여했던 인물로 알려져 있다. 1643년의 콜리마 원정에 참여했던 이들은 이후 북극해를 향한 독립적인 해양 원정도 수행했다. 그렇게 벨로프(М. И. Белов)의 자료에 따르면 1646년 Григорий Фотанов(Григорий Фотанов)가 콜리마에서 레나로의 해양 항해를 지휘했고, 1648년 이반 쿠지민 벨랴나(Иван Кузьмин Беляна)가 역시 콜리마에서 레나로의 해로 이동을 지휘했다고 한다.¹⁵⁾

그림 17 미하일 이바노비치 벨로프



출처: “Белов, 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https://ru.wikipedia.org/wiki/%D0%91%D0%B5%D0%BB%D0%BE%D0%B2,%D0%9C%D0%B8%D1%85%D0%B0%D0%B8%D0%BB_%D0%98%D0%B2%D0%B0%D0%BD%D0%BE%D0%B2%D0%B8%D1%87 (검색일: 2026.02.27).

15) Там же. С. 78.

벨로프(М. И. Белов)는 콜리마 원정에 셀리반 하리토노프(Селиван Харитонов)가 참여했으리라 추정했다.¹⁶⁾ 그러나 민장문서에 하리토노프의 이름은 없다. 그리고 하리토노프가 1644년 여름 이전에는 스타두힌 및 그의 동료들과 함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보다 늦게 합류했다고 보는 것이 아마도 더 확실하다. 스타두힌이 콜리마에 도착하기 전에 하리토노프가 그곳에 살았다는 바흐루시나(С. В. Бахрушина)의 추정을 확인해주는 증거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민장문서에서는 콜리마의 (원)주민들이 스타두힌과 그의 동료들을 최초의 러시아인으로 봤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따라서 이 역사적 원정에 참여한 23명(데즈노프 포함) 모두가 아마도 완벽한 기반에 근거하여 (러시아인으로서는) 콜리마 지역을 최초로 개척한 이들로 여겨진다.

그런데 이번 콜리마 원정에 러시아측에 가담했던 최초의 축치인(чукча)인 ‘오펜카 야키모프 추흐차’(Офонька Якимов Чухча)가 참여했다는 것도 예상치못하게 드러났다(그는 이후에 카자크가 되기도 했다).¹⁷⁾ 외견상 이는 축치족이 가장 빨리 러시아 원정에 참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스타두힌과 그의 동료들의 1643년 콜리마 원정에서 유카기르어를 알았던 인물이자 원정대의 추코트어 통역관(толмач)이 밝혀지게 됐다.

4. 발굴된 문서는 콜리마 강을 최초로 개척한 이들의 삶과 ‘콜리마 땅’(Колимская земля)에서 체류한 첫 1년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건들을 충분히 상세하게 복원하는 연구에서 가치를 나타낸다. 이 문서는 특히 데즈노프(С. И. Дежнёв)와 스타두힌(М. В. Стадухин)의 전기작가들에게 흥미로울 것이다.

극동의 저명한 역사가인 오고로드니코프(В. И. Огородников)는 매우 자신만만하게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콜리마 강 하류 최초의 월동기지는 지란과 데즈노프가 이 강에 아직 도착하기 전에 스타두힌이 건설했다.”¹⁸⁾ 다른 학자들은 데즈노프와 지란이 스타두힌과 함께 도착했다고 주장했다. 17세기 중반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이 일이 1644년에 일어났다는 의견이 존재했다. 다만 일부 역사가들(오고로드니코프와 벨로프 등등)만이 콜리마에서 최초의 러시아인 출현을 1643년으로 간주했다.¹⁹⁾

1977년 야쿠츠크 요새의 야삭 장부 필사본 선집(сборников рукописных ясачных книг) 중 하나를 검토하면서 본 저자는 정말로 예기치않게 1644년의 콜리마 야삭 장부를 발견했다. 그 장부의 내용으로 1644년 여름에 러시아 카자크들이 마침내 판텔리(Пантели)와 그의 무리들(товарищи)에게 속한 콜리마강 하류의 유카기르족으로부터 최초로 야삭을 징수하는데 성공했음이 알려지게 됐다. 모든 걸 판단해 볼 때 이는 무엇보다도 상호 유익한 거래의 조직화 덕분에 달성됐다. 정말로 콜리마 강 하류의 유카기르족은 화약무기(огнестрельное оружие)를 보유한 상태로 이제 콜리마 강 중류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러시아인들이 바다쪽 해안으로부터는 그들을 한번도 공격한 적이 없는 전투적인 축치족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러시아인 역시 우선적으로 풍부한 생선을 통한 자신들의 보급을 위해 1644년 봄 콜리마 강 하구에 도착했다. 이곳에서는 물고기가 콜리마 강 중류보다 훨씬 많았다.

16) Белов М. И. Семен Дежнёв. М., 1955. С. 24. Ссылка на РМ. С. 330-331.

17) 오펜카 추흐차가 실제로 축치인이었다는 것에 관한 간략한 정보는 다음을 보라: РГАДА. ЯПИ. Оп. 3. 1675. 9. Л. 456, а также: Оп. 4. Кн. 1033. Л. 18.

18) Огородников В. И. Из истории покорения юкагирской земли. Чита, 1922. С. 318.

19) Там же. С. 317, и Белов. М. И. Семен Дежнев. М., 1955. С. 41.

1961년 마가단 출판사를 위해 저자인 미하일 폴레보이가 준비한 스타두힌의 전기는 다음호에서 계속 이어나가도록 한다.

(다음호에 계속)

[참고문헌]

- Архивы: Рус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Архив Древних Актов (РГАДА), бывший
Центральный гос. архив древних актов (ЦГАДА) в Москве / Якутская
приказная изва (ЯПИ). Оп. 3. 1675. 9. Л. 456, а также: Оп. 4. Кн. 1033. Л. 18.
- Белов, М. И. *Семен Дежнёв*, М.: 1955.
- Демин, Л. М. *Семен Дежнев*, М.: 1990.
- Долгих, Б. О. *Родовой и племенной состав народов Сибири в XVII веке*, М.: 1960.
- Крейнович, Е. А. “Из жизни тундренных юкагиров на рубеже XIX и XX вв.” *СНВ*,
Вып. XIII, 1972.
- Магидович, И. П. и Магидович, В. И. *Очерки по истории географических открыти
й*, М.: 1983. Т. 2.
- сб. Магидович, И. П. и др. *Русские мореплаватели*, Москва: Воен. изд-во, 1953.
- Миллер Г. Ф. “Описание морских путешествий по Ледовитому и по Восточному мо
рям с российской стороны учиненных,” *Сочинения и переводы к пользе и ув
еселению служащих. Кн. 1*, СПб.: 1758.
- Полевой, Б. П. “Значение историко-этнографических ареаль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для решения вопроса о месте основания первого рус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на
Колыме в 1643 г.,” *Народы и языке Сибири. Ареаль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М.:
1978.
- . *Новое об открытии Камчатки*, Петропавлоск-Камчатский: Издател
ьство “Камчатский печатный двор,” 1997.
- . “О местоположении первого рус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на Колыме,” *Док
лады Института географи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ркутск: 1962, Вып.
2.
- О местоположнии первого русского поселения на Колыме // Доклады Ин-та
географии Сибири 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Иркутск, 1962.
- Огородников, В. И. *Из истории покорения юкагирской земли*, Чита: 1922.
- Очерки истории Чукотки с древнейших времен до наших дней, Отв. ред. д-р ист.
наук Н. Н. Диков, Новосибирск: Наука. Сиб. отд-ние, 1974.
- Русские мореходы в Ледовитом и Тихом океанах*, Сб. докум. Составил М. И.
Белов, Л.: М., 1952.
- “Белов, Михаил Иванович,”
https://ru.wikipedia.org/wiki/%D0%91%D0%B5%D0%BB%D0%BE%D0%B2,%D0%9C%D0%B8%D1%85%D0%B0%D0%B8%D0%BB_%D0%98%D0%B2%D0%B0%D0%BD%D0%BE%D0%B2%D0%B8%D1%87 (검색일: 2026.02.27).
- “Долгих, Борис Осипович,”
<https://ru.wikipedia.org/wiki/%D0%94%D0%BE%D0%BB%D0%B3%D0%B8%D1%85,%D>

0%91%D0%BE%D1%80%D0%B8%D1%81_%D0%9E%D1%81%D0%B8%D0%BF%D0%BE%D0%B2%D0%B8%D1%87 (검색일: 2026.02.27).

“Полевой Борис Петрович,” <https://bsk.nios.ru/enciklodediya/polevoy-boris-petrovich> (검색일: 2024.10.01.).

“Среднеколымску – 375 лет: Читайте самые интересные факты о городе в нашей фотоподборке,”
<https://ysia.ru/srednekolymsku-375-let-samye-interesnye-fakty-o-gorode/> (검색일: 2026.02.27).

Fisher, Raymond H. *The Voyage of Semen Dezhnev in 1648: Bering's Precursor with selected documents*, London: The Hakluyt Society, 1981.

“The voyage of Semen Dezhnev in 1648 : Bering's precursor : with selected documents / [edited] by Raymond H. Fisher Hardcover,”
<https://www.amazon.com/voyage-Semen-Dezhnev-1648-precursor/dp/B001NVHBHU> (검색일: 2026.01.11).

[공지 사항]

- 본 잡지 『북극연구』는 북극 지역에 관련된 인문, 사회, 과학 등 전 분야에 걸친 자유로운 형태의 글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옥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 『북극연구』의 발간 예정일이 2월 28일, 5월 31일, 8월 31일, 11월 3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고 마감일은 매 발간 월 20일까지임을 공지합니다.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에서 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의 등재지 『한국 시베리아 연구』의 출간 횟수와 일정에 변경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기존의 연 2회 발간에 연 4회(매년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논문 투고 마감일은 매년 2월 20일, 5월 20일, 8월 20일, 11월 20일로 변경되었음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본 학술지의 질을 더욱 더 향상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